

# 전소니에게 망설임은 없다

넷플릭스 '기생수:더 그레이' 수인 연기  
2014년 데뷔 후 첫 본격 장르물 출연해  
"망설이지 않고 출연 결정...욕심 나더라"  
인간·기생수 1인2역 "캐릭터 재단 안해"



"쉽게 만날 수 없는 캐릭터라 확실히 욕심이 났어요."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더 그레이' 주인공 수인을 맡은 배우 전소니(33)는 작품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바디 스네처(Body Snatchers-신체 강탈) 장르물이다. 바니 스네처는 정체 불명의 생명체가 인간 몸에 침투해 표적으로 삼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원래의 모습을 사라지게 만드는 형식의 장르물을 통칭한다. 종종 신체를 변형시켜 존재를 드러내는 게 특징이다.

1955년 미국 작가 피니의 소설 '바니 스네처'가 발표된 뒤 동명의 리메이크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바디 스네처 장르의 영화·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영화 '외계+인' 시리즈(2022·2024) 정도를 제외하고는 명확히 바디 스네처 장르라 할만한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988~1995년 일본에서 연재된 이와야기 히토시의 바니 스네처 만화 '기생수'를 원작으로 한 '기생수:더 그레이'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려는 기생 생물이 한국에 등장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전담팀 '더 그레이'의 작전이 시작되고, 이 가운데 기생 생물 하이드와 공생하게 된 인간 수인의 이야기를 그린다.

전소니는 인간인 수인과 기생 생물인 하이드 1인 2역을 소화했다. 다른 기생 생물이 인간의 귀나 입 등으로 침투한 뒤 뇌를 먹어 자이를 완전히 잠식한 것과 달리 하이드는

침투 당시 칼에 찔려 약해져 있던 수인의 몸을 치료하느라 온전한 잠식에 실패한다. 이로 인해 하이드가 하루에 15분 동안에만 수인의 몸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수인과 하이드는 몸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 "하이드를 연기할 때는 수인이랑 다르게 움직임이 어색해보이는 것과 같이 편안한 모습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지 없는 지 차이도 부각하려고 했어요. 도망갈 때를 예로 들자면, 하이드는 그저 도망가려는 행동을 수행하는 감정 없는 상태인 반면 인간인 수인은 두려움을 느끼는 표정을 하는 것처럼 작은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이드는 수인의 오른쪽 얼굴에서 자신의 입과 눈을 따로 가진 채 긴 촉수로 튀어나오며 모습을 드러낸다. tvN 드라마 '화양연화-살이 꽃이 되는 순간'(2020), '청춘월담'(2023) 등 로맨스·멜로 장르물로 주목 받았던 전소니는 하이드 역을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강렬한 장르물을 찍게 됐다. "이 역할을 두고 저보다 오히려 주변에서 더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이드 역을 맡는 것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도 당연히 예쁘고 싶지만, 역할과 저 자신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니까...저는 제일 때 예쁘면 돼요."

이번 작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생 생물인 하이드와 만난 뒤 수인이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수인은 불행한 과거를 가진 29세 마트 직원이자.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신고한 뒤 어머니에게는 버려진 불운한 인물이다.

생존을 위해 마트 일을 하는 것 외에 스스로 하는 일도,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던 수인은 하이드와 함께하며 타인을 위한 행동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미소 짓기까지 한다. 전소니는 "수인이 하이드와 강우를 만나기 전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어보였고 그렇다고 삶을 놓을 의욕도 없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인물이라고 봤어요. 그런 수인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마주한 뒤 강우랑 같은 목적을 두고 행동하거나 하이드와 함께하면서 하이드를 자기 편이라고 느끼는데, 그러면서 수인이 안에 잠들어있던 어떤 의지를 발견한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좋은 삶은 난 혼자야 아니다." 하이드와 수인은 동시에 몸을 사용할 수 없어 현실에서는 편지로 소통한다. 하이드는 수인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를 통해 이 말을 전한다. 이걸 읽고 수인이 지은 미소의 의미를 전소니는 '받은 엽보, 받은 위로'라고 해석했다. "그 말로 하이드가 수인에게 어쨌든 우리는 몸을 같이 써야한다는 사실을 잊지말라는 것과 동시에 난 진짜 혼자야 아니야 라는 위로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인이 지은 미소에는 오직 감동만 담긴 것은 아니지만, 그저 수인이 하이드를 떠올릴 때의 미소라고 봐요."

'기생수: 더 그레이'는 공개 직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비영어 티브이(TV) 시리즈 부문에서 조회수 약 6300만 회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영어 부문과 통합하더라도 '삼체'(8300만회)에 이어 2위다. 일주일 간격으로 집계되는 이 차트에서 '기생수:더 그레이'는 단 하루 간 기록한 조회수로 통합 2위에 올랐다. 전소니는 해외에서 큰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연락 잘 안하던 유학친 친구들이나 해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홍행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하더라고요. 순위는 저희도 볼 수 있지만 현지 분위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현지 반응이 좋다고 연락 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시즌2가 나온다면 수인과 하이드가 둘만의 시간과 경험을 쌓으면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마지막 장면은 원작 팬이 환호할 장면일 것"이라 말한 연감독의 말은 사실이었다. 일본 배우 스다 마사키는 원작 주인공인 이즈미 신이치로 등장한다. 원작 세계관과 합쳐지면서 마무리된 것을 두고 '시즌2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전소니는 시즌2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상호 감독님과 일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 또 하고 싶어요. '감독님과 작업했던 시간이 좋았다'는 생각은 촬영이 마무리되고 나서 더 거라 더 진심이다"라며 추후 작업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정말로 가시 없는 얘기인데, 전 저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던 간에 반갑고 그걸 잘 해내고 싶은 마음 뿐이지, 뭘 하고 싶단가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거나 이런 생각을 안해요. 데뷔가 이른 편이 아니라 작품이 고됐던 시간이 있었어서, 그 시간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내가 재단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에요."

뉴스스



# 故 박보람 측 "명예훼손성 게시물 법적대응"

가수 박보람(1994~2024)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온라인에 가짜 뉴스가 퍼지자 소속사가 법적대응한다.

제나두엔테이엔터테인먼트는 14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다. 그녀가 고인이 된 현재에도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중이다. 제나두엔테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를 접한 당사 및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허위와 역측성 영상물, 게시물 등은 즉각 내려주시길 요청 드린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히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박보람은 11일 경기 남양주 소재 여성 지인의 집에서 다른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거는 안방 화장실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졌다. 박보람과 절친한 가수 김그림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넣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투버들 어떻게 조처하는 법 없나요?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지인분들이 보낸 링크들 보는데 정말 피가 솟구친다. 적당히들 하라. 천벌받는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전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제나두엔테는 고인의 장례 절차와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박보람은 2010년 엠넷 '슈퍼스타K2'에 출연 뒤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

뉴스스

# '데뷔 50주년' 김연자, 내달 KBS서 특집방송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한류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KBS 특집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13일 소속사 조이크리에이티브랩에 따르면, 오는 5월25일 오후 9시15분 KBS 2TV 특집 프로그램 'KBS프리미어 김연자 더글로리아'가 방송된다. KBS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했다.

일본에서 한류원조 스타로 통하는 김연자는 1974년 TBC 오디션 프로그램 '전국 가요 신인 스타 쇼'에서 우승한 뒤 '말해줘요'로 데뷔했다. 1977년 일본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1987년 현지에서 다시 진출, 고군분투 끝에 원조 한류스타로 발돋움했다. 그해 최고의 가수들만 나오는 NHK '홍백가합전'에 3차례 출연하는 등 20여 년간 엔카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국내에서도 '아침의 나라에서', '수은동', '천하장사', '10분 내로', '진정인가요' 등의 히트곡을 냈다. 특히 2016년 발매한 '아모르파티'를 통해 MZ세대까지 사로잡았다.

올해 김연자는 '썩덕쿵'과 '정든님'으로 호흡을 맞춘 최진규 대표의 조이크리에이티브랩에 합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조이크리에이티브랩은 "김연자는 후배 가수들의 발걸음 및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제로베이스원, 내달 미니 3집 발매

프로젝트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제베원)이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낸다.

14일 소속사 웨이크원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은 오는 5월13일 세 번째 미니앨범 '유해드 미 애 헬로우(You had me at HELLO)'를 발매한다. 작년 11월 낸 미니 2집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 이후 첫 신보다.

제로베이스원은 컴백에 앞서 신보의 수록곡 '스웨트(SWEAT·땀)'을 24일 오후 6시 선공개한다.

웨이크원은 "여름처럼 뜨거운 컴백을 예고한 아홉 멤버는 '스웨트'라는 노래 제목처럼 여름의 뜨거움과 열정을 청량한 비주얼과 예너제틱한 퍼포먼스로 그려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엔 '스웨트' 발매와 함께 선공개 곡임에도 일주일간 음악방송을 통해서 팬들과



만난다.

# 김남주·차은우 시너지 '원더풀 월드' 유종의 미...시청률 9%대 종영



김남주·차은우 주연의 MBC TV 금토극 '원더풀 월드'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원더풀 월드' 최종회인 14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9.2%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인 9회(3월29일), 11회(4월5일), 13회

## 최고 시청률은 9·11·13회 11.4%

(4월13일)의 11.4%에 미치지 못했지만 10%에 육박했다.

이날 마지막회에선 은수현(김남주 분)과 권선율(차은우 분)을 주축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김준(박혁권 분)의 온갖 악행들을 고발하며 소위 '김준 게이트'를 오픈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드라마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이 드라마로 6년 만에 복귀한 김남주는 호연

했다. 극중 어린 아들을 잃고 인면수심의 가해자를 직접 처단하며 전과자가 돼 인생이 180도 바뀐 은수현 역으로 애절한 모성에 연기를 보여줬다.

차은우는 정치인의 하수인이었다가, 김남주를 도와 정의의 편에 서는 권선율 역을 통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그간 주로 보여왔던 다정한 이미지를 깨고, 대중이 미처 알지 못했던 '흑화은우'의 매력을 발휘해냈다.

김남주와 차은우의 얽히고 설킨 입체적 관계성과 시너지 역시 호응을 얻었다.

'원더풀 월드' 후속작은 이재훈 주연의 수사 반장 1958다.19일 첫 방송한다.